

졸업 연설

이준섭

오늘 오신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.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와야 되서 미안합니다. 오늘은 저의 졸업식이지만, 저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. 오늘은 재학생들을 위한 날이에요. 저는 저의 졸업식보다, 남아 있는 재학생들이 노력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저는 사랑한국학교를 2012 년에 처음 왔습니다. 그 4 년동안, 힘든 일을 많이 했습니다. 일을 안하고 싶었을 때가 많았고, 일을 아주 안하고 싶었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. 그런데 학교에서 배운게 많았어요. 고사성어, 역사, 문화, 전래동화, 등 더 많이 배웠습니다. 수업과 숙제가 힘들 때도 많았지만, 그 때는 힘들어도 배운 것들이 많아서 지금은 기분이 좋습니다. 재학생들이 계속 한국학교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. 시간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, 한국학교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이 지구에는 없습니다. 대한민국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고, 평화로운 나라가 이 지구에는 없어요. 이 특징들 때문에 우리가 한국학교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.

지난 4 년 동안 저한테 잘해 준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. 감사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부모님, 감사합니다. 제 숙제를 도와주고 할 수 있다고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맹순영 선생님과 최석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. 저의 첫 친구 전준영한테도 고마워요. 다른 친구들한테도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. 나중에는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겠습니다. 한국학교에서 4 년은,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.

2016 년 6 월 11 일